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9 주차 (16:25~17:5)

(2015년 10월 18일 - 2015년 10월 24일)

(제3권 39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0 월 1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가심이란? (주일)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 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ῶ ὑμῖν.)
-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ἴ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ῖ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ᾷ·)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ὶ μὲν ἄφῃ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ὶ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ψι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세상으로 들어 오셨으며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로고스로 계셨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며 그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 왔습니다(요 1:1).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이적들과 가르침은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믿고 따랐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입에 거론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고 수난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베들레헴 허름한 집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우셨으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그분께 경배하고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만이 그분의 탄생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는 그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요. 이처럼 예수

남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받았었고 마침내는 실제로 그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과정을 거쳐 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토록 견디기 힘든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었을까요? 그 답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아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낼수록 어떤 이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점점 살해의 위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위협을 피하기 위해 종교 다원주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옳은 길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옳은 길이며,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도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이유도 없었고 나아가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⁴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22).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져야만 열리게 되어 있는 길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³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³⁴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³⁵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³⁶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³⁷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³⁸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³⁹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막 15:33-39).

회장이 갈라지는 것은 막혀있던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것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선 그 길이 그저 평탄한 길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잘 닦여진 고속 도로를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것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풀릴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그리 두려울 것도 없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둘로 쪼개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것,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수난 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땅에 쏟으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란 자격도 없는 자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히 값을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이 공짜로 주어졌으니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당신은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습니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 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ῶ ὑμῖν.)
-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ἶ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ῖ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ᾷ.)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ὶ ἐμὸν ἀφή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ι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ι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ψι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9~3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29 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 두 번째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예수님은 25 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고 또 그가 가르침대로 행동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의문들을 밖으로 발설하기도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아시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저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 이후에야 이 비유를 알아들을 능력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여 동안 그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비유였다는 것과 그 비유 속에 감춰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도 비유고, 가르침도 비유였으며, 심지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도 모두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비유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깨닫는 과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아주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다든지, 38년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그분이 고쳐 주실 것이라 가르치기도 하지요. 씨 뿌리는 비유는 곧 바로 성령의 열매로 연결지어 해석해 버립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게 되고, 불치병도 능히 고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든, 또 그분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관점을 옮겨가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여전히 주눅들고 왜소해지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율법의 잣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그것을 채우려 애를 쓰고 있다든지,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어떤 규격화된 종교적 틀 속에 가둬 놓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잣대로 남도 재단하여 그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하며 비난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한 그 ‘자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무언가에 얽매어 있고 또 같은 잣대로 남들을 얽매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의 선물을 누리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 장 17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여 율법 아래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화목된 사이이며 우리를 향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이미 내려 놓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려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퍼부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퍼부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온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화평한 관계로 복원되었음을 알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

는 일들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30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 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과 오랜 생활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위 ‘관심법’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낸 것도 아니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입밖에 낸 적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²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 ³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⁴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⁵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⁶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⁷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⁸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⁹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¹⁰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1-10).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꿰고 계시며, 어딜 가든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에 당신은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음은 현실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 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ῶ ὑμῖν·)
-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ἶ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ῖ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ᾷ.)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ὶ ἐμὸν ἀφή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ι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ψι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없더니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딱히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 한 마디로 간단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32절을 읽으십시오. 31절에서 “너희가 지금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렀다.[그 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31절의 질문과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비추어 이 질문을 해석하면 ‘제자들에게는 아직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32절의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예수님에게 환란이 닥치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갈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곧 자신과 나아가 예수 공동체에 닥쳐올 위협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에서 때란 예수님이 잡히시고 수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불과 몇시간 이내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수난당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3여 년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눈 앞에서 잡혀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뚱이 하나 보신하기 급급해서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베드로는 그분이 수난 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말이지요. 이렇듯 예수님이 수난 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비겁함이란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소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닥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 받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삶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어 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바쳐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병마와 가난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춘기 아이가 제 자리를 찾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폭행이나 마약에 연루되어 경찰에 연행된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고별사지 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먼길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 못할 수모를 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각각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가 불치병 진단을 받아 남은 시간이 불과 수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믿음, 즉 결국엔 예수님께로 간다는 믿음으로 인해 그 힘든 상황을 너끈하게 잘 견뎌 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까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 오면 또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요에 처할 줄도,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처지에서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닥쳐올 빈궁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말 못할 두려움으로 날밤을 지새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제자들의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런 이야기를 귀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자신들이 용기를 발휘해서 능히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집단 투항이라도 하겠노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닥치기 이전에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현실은 실제입니다.

우리들은 고난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견뎌 내라고 위로합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험에 있는 분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한 순간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다시 시간이 흐르면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 등이 머리를 쳐들고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믿음을 시험해서 그 순간에도 평화롭고, 자유롭고, 심지어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현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음은 현실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6:25~33)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 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내가 비유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때가 이를 것이다 (ἔρχεται ὥρα)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ὅτε οὐκέτι ἐν παροιμίαις λαλήσω ὑμῖν·)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ἀλλὰ παρρησίᾳ περὶ τοῦ πατρὸς ἀπαγγεῖλω ὑμῖν·)
-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αἰτήσεσθε·)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고 (ὅτι ἐγὼ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περὶ ὑμῶν·)
- (27절)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αὐτὸς γὰρ ὁ πατήρ φιλεῖ ὑμᾶς·)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ὅτι ὑμεῖς ἐμὲ περιλήκατε καὶ πεπιστεύκατε ὅτι ἐγὼ παρὰ [τοῦ] θεοῦ ἐξῆλθον·)
- (28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ξῆλθον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πάλιν ἀφήμι τὸν κόσμον καὶ πορεύομ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29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보소서 지금은 당신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ἴδε νῦν ἐν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ς καὶ παροιμίαν οὐδεμίαν λέγεις·)
- (30절)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νῦν οἶδομεν)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ὅτι οἶδας πάντα καὶ οὐ χρείαν ἔχεις ἵνα τίς σε ἐρωτῇ.)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ἐν τούτῳ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ξῆλθες.)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너희가 지금 믿느냐? (ἄρα πιστεύετε.)

(32절) 보라 때가 왔고 이르렀다 (ἰδοὺ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ἐλήλυθεν)

그결과 너희들은 각각 너희들의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ἵνα σκορπισθῆτε ἕκαστος εἰς τὰ ἴδια)

그리고 나를 홀로 남겨 놓을 것이다 (καί με μόνον ἀφήτε.)

그러나 나는 홀로가 아니니 (καὶ οὐκ εἰμι μόνος.)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ὅτι ὁ πατήρ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ἐν ἐμοὶ εἰρήνην ἔχητε.)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을 당한다 (ἐν τῷ κόσμῳ θλίβην ἔχετε.)

그러나 담대하라 (ἀλλὰ θαρσεῖτε.)

내가 세상을 이겼다 (ἐγὼ νενίκηκα τὸν κόσμ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긴 고별사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줄곧 자신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 대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와는 판이한 삶을 살게 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의 삶은 누릴 수 없을 것이며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어왔고, 급기야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대적인 핍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일차 독자였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고별사의 맨 마지막 부분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겐 분명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한 번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환란’과 ‘핍박’과 ‘곤고’를 이야기하고 하고 계시다는 점이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를 박탈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평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평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불확실한 상황이 모두 없어지고 내 안에 평정심을 찾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사찰에서 소위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무념무상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을 찾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평화는 어느새 삶이 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내 깨지고 맙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더구나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커녕 점점 더 악화일로로 걸을 때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초초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지요.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무작정 이상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너는 왜 그런 믿음이 없나?’며 현재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며 그 당사자에게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으로 하늘 나라를 지향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고난을 당했을 때 아파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죄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¹⁸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¹⁹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²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²¹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²²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²³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18-23).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몸의 구속’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별사 중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어로 한 말씀이 “담대하라!”입니다. 세상에서의 환란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마음을 다잡아 확신을 가지고 용기있게 환란을 헤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없는 나를 불러 주셔서 나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현실이 닥쳐온다해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형성된 그 평화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세상적인 근심이든 상관없이 환란은 환란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을 당하든지 그속에서 이 세상에 나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로 인해 마음의 평강이 무너진 상태는 아닌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지배하지는 않나요? 말 못할 수치심으로 인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그 진리 앞에서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영화의 역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5)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αῦτα ἐλάλησεν Ἰησοῦς)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πάρ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αὐτοῦ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ἶπεν)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πάτερ,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δόξασόν σου τὸν υἱόν),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ἵνα ὁ υἱὸς δόξῃ σέ.)
- (2절)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듯이 (καθὼς ἔδωκας αὐτῷ ἐξουσίαν πάσης σαρκός)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ωκας αὐτῷ δώσῃ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3절) 이것이 영생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αἰώνιος ζω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ἵνα γινώσκωσιν σὲ τὸν μόνον ἀληθινὸν θεὸν καὶ ὃν ἀπέστειλας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 (4절) 내가 이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ἐγὼ σε ἐδόξασα ἐπὶ τῆς γῆς)
당신이 내가 행하도록 나에게 준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τὸ ἔργον τελειώσας ὃ δέδωκάς μοι ἵνα ποιήσω)
- (5절) 지금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καὶ νῦν δόξασόν με σύ, πάτερ.)
당신 앞에 있던 그 영화로 (παρὰ σεαυτῷ τῇ δόξῃ)
창세 전에 당신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화] (ἢ εἶχον πρὸ τοῦ τὸν κόσμον εἶναι παρὰ σοί.)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긴 고별사 (14 장~16 장)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제자들이나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

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 기도는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문을 고별사의 연장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1 절과 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었듯이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p>[1 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δόξασον σου τὸν υἱόν.)</p> <p>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ἵνα ὁ υἱὸς δοξάσῃ σέ.)</p>	<p>마치 ~처럼 (καθώς)</p>	<p>[2 절]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ἔδωκας αὐτῷ ἐξουσίαν πάσης σαρκός)</p> <p>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ωκας αὐτῷ δώσῃ αὐτοῖς ζῶην αἰώνιον.)</p>
--	---------------------------	---

[참고로 2절에서 그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일인칭이 아닌 3인칭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구를 이루는 말씀을 연결하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와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가 한 짝을 이루고 ‘하나’(ἵνα)로 시작하는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와 “당신이 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가 한 짝을 이룹니다. 이처럼 짝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짝을 이루는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중심으로 해석의 틀을 짜면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1절의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이 행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모두 끝났으니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화려한 대관식을 준비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이끌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수난의 길로 자신을 이끌어 희생 제물로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부활이 있어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궁

극적으로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2절의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탁한 모든 육체들에 대한 권한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지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영화의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해도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⁴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⁴³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⁴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⁴⁵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⁴⁶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⁴⁷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⁴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⁴⁹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2-19).

부활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육체들이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노력으로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를 되살리는 것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안에 속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의 권한으로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부활의 몸속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히나 (ivα)가 이끄는 절의 대구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절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40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³⁷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³⁸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³⁹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37-40).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의 뜻은 하나님 이 예수님께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란게 그저 쉽게 주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매우고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 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 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 으로 태어나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 과는 무관하게 하나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그런 객관적 사실때 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 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인 것 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수난을 통해서 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또 예수님 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나요?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 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영생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5)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αῦτα ἐλάλησεν Ἰησοῦς)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πάρ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αὐτοῦ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ἶπεν)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πάτερ,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δόξασόν σου τὸν υἱόν),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ἵνα ὁ υἱὸς δόξῃ σέ,)
- (2절)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듯이 (καθὼς ἔδωκας αὐτῷ ἐξουσίαν πάσης σαρκός)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ωκας αὐτῷ δώσῃ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3절) 이것이 영생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αἰώνιος ζω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ἵνα γινώσκωσιν σέ τὸν μόνον ἀληθινὸν θεὸν καὶ ὃν ἀπέστειλας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 (4절) 내가 이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ἐγὼ σε ἐδόξασα ἐπὶ τῆς γῆς)
당신이 내가 행하도록 나에게 준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τὸ ἔργον τελειώσας ὃ δέδωκάς μοι ἵνα ποιήσω)
- (5절) 지금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καὶ νῦν δόξασόν με σύ, πάτερ,)
당신 앞에 있던 그 영화로 (παρὰ σεαυτῷ τῇ δόξῃ)
창세 전에 당신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화] (ἢ εἶχον πρὸ τοῦ τὸν κόσμον εἶναι παρὰ σοί.)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그리스도를 보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이것이 영생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의미를 하나님과 그 보내신 분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영생이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αἰώνιος ζω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17장 3절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나 (ἵνα)가 이끄는 뒷부분을 형용사절로 해석한 것인데 앞에서 배웠듯이 히나절은 결과나 목적절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앞서 1절과 2절의 대구법을 통해 설명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과정, 다시 말해 그것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영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구원의 절차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³⁰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예정’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이 ‘예정’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37 참조).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엡 2:1).

하나님의 두번째 일은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 장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으로부터 살려 내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벧전 2:9 참조).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름을 불러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먼지가 풀풀나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

어서 사망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그래서 죽은 시체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롬 5:8 참조). 그리고 새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어 새생명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마지막 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 복음에서 그 영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새생명을 불러 넣어주기 전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은 바로 인간들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는 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과정에서 소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언제부터 개입할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인간들이 구원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새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주도권이 절대 인간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들이 믿어야 새생명을 얻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이 세상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 있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시체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거듭남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불러 넣어 주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첫 반응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죽은 존재이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반응은 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자신이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그의 를 살아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이 아무런 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만들어진 그의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칭의에 반응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 드디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은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조금만 남들에게 뒤쳐져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한 발만 남들보다 앞서도 쉽게 교만해 집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정욕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는 욕망들을 하나하나 내려 놓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일생 동안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인간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화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입는 과정이 성화인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지금 전개 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1~5)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αῦτα ἐλάλησεν Ἰησοῦς)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πάρ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αὐτοῦ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ἶπεν)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πάτερ, ἐλήλυθεν ἡ ὥρα)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δόξασόν σου τὸν υἱόν),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ἵνα ὁ υἱὸς δόξῃ σέ,)
- (2절)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주셨듯이 (καθὼς ἔδωκας αὐτῷ ἐξουσίαν πάσης σαρκός)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ωκας αὐτῷ δώσῃ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 (3절) 이것이 영생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αἰώνιος ζω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ἵνα γινώσκωσιν σέ τὸν μόνον ἄληθινὸν θεὸν καὶ ὃν ἀπέστειλας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 (4절) 내가 이 땅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ἐγὼ σε ἐδόξασα ἐπὶ τῆς γῆς)
당신이 내가 행하도록 나에게 준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τὸ ἔργον τελειώσας ὃ δέδωκάς μοι ἵνα ποιήσω)
- (5절) 지금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καὶ νῦν δόξασόν με σύ, πάτερ,)
당신 앞에 있던 그 영화로 (παρὰ σεαυτῷ τῇ δόξῃ)
창세전에 당신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화] (ἧ ἔχον πρὸ τοῦ τὸν κόσμον εἶναι παρὰ σοί)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4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 가르침들을 통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그분이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인간 사회를 통치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김’과 ‘대속’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섬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섬김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섬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공동체에서 허드렛일을 먼저하고 술선수범해서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제외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곤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만찬을 준비하지도 않으셨고, 짐을 나르지도 않았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섬김이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섬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 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창녀들과 세리들을 직접 찾아다니셨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살던 문둥병자들을 찾아서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거지이자 장님인 비천한 사람을 만나 그들을 제자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이 말은 그 제자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그 모든 것을 목격한 목격자였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열두 명의 사도라기 보다는 그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들은 자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지요.

“¹⁸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의 행적,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해 받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

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계시하였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과업을 모두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5 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인 ‘대속’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오늘의 본문 5 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4 절) 그러니 이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로 옹립되어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는 의미의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함입니다. 그가 죽고 부활해야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창세 전에 갖고 있던 그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으시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없이는 예수님은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 창세 전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영화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통합적이고 통시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 영화는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이 가지는 영화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화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에 관한 책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여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즉,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영화를 택한 백성 모두와 함께 하는 회복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그 창세전 영화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³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⁷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⁹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¹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¹¹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¹²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략)... ²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²¹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

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²²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²³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3-23).

결국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계시하시며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예수님의 영화인 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의 구속이 없이는 예수님의 영화도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화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자신을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과정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는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화 가운데로 인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를 받는 것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정한 영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